

사료로 본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기거용 가구

- 床榻(상榻)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aily life Furniture in Three Kingdoms and Unified Silla Period

- Based on the Sang[床] and Tap[榻] -

이정미* / Lee, Jeong-Mee

Abstract

The ondol is a uniquely Korean system of providing warmth to room. The ondol rooms never use daily life furniture because the ondol warms the floor surface where people sit. Finally, the ondol floor changed the traditional housings inner space. Before use ondol where daily life furnitures[sang(床) and Tap(榻)] are installed in the room. The origin of daily life furnitures are the ancient tomb mural of Koguryo Period. The daily life furniture can be classified as three large groups in the ancient tomb mural of Koguryo. First, a single seat[Jowa-sang(座床)] of set up a screen[屏風]. The second, It make possible Many peoples take a seat with no decoration seat[Tap(榻)]. The third, uptodate table and chairs. A radical difference between sang(床) and Tap(榻) whether set up a screen[屏風]. The meaning of sang(床) and Tap(榻) in Koguryo ancient tomb provided Oksa-jo[屋舍條] in Samkuk-sagi[三國史記] with several valuable leads to help solve the sang(床)'s meaning. Furthermore, it will be start ponit of study on constructive shape of inner space in those days.

키워드 : 기거용 가구, 고구려 고분벽화, 상,榻, 삼국사기, 옥사조

Keywords : Daily life furniture, The ancient tomb mural of Koguryo Period, Sang, Tap, Samkuk-sagi, Oksa-jo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전통주거의 실내공간은 전면온돌이 보편화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짐작된다. 추운 계절에 바닥이 따뜻한 온돌은 앉거나 누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바닥일 때는 적당한 가구의 설치가 건강상 요구된다. 실내공간에 어떠한 가구가 비치되는가 하는 것은 당시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내부공간의 규모와 형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면온돌은 이부자리를 뒀다겠다 할 수 있으므로 공간은 유동성 있지만, 바닥 난방 시설이 없는 경우 침대와 같은起居用家具¹⁾는 항상 공간을 점유하게 되므로 취침 이외의 생활을 위하여 공간규모는 더 필요하게 된다. 실내공간규모는 천정고에도 영향을 미치며 바닥에서 생활하는 좌식인가 가구를 사용하는 입식생활인가에 따라 창문의 구성형식과 높이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전면온돌이 시설된 실내공간과 기

거용 가구를 사용하던 실내공간은 매우 다른 모습이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온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되었는지 온돌 이전의 실내공간은 어떠한지 이러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료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내부공간 및起居用家具에 관한 가장 오래된 그림 자료는 고구려 고분벽화이다. 고분에 나타난 귀족주거의 모습은 오랜 시간 우리의 자연환경과 사회, 경제적인 환경에 대응하여 현존하는 조선시대 반가와 같은 실내공간으로 변천되었다. 아직까지 고구려에서 조선의 실내공간으로 변천하는 과정에 대하여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 가운데 조선의 침상²⁾만이 고구려 고분벽화 묘주의 기거용 가구로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증적 자료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침상은 오랜 시간 사회 변화에 대

1)본 논문에서 기거용 가구라 함은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실내공간에 선택적으로 배치되는 장식적 혹은 수납용 가구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주용 가구를 의미한다.
2)다리가 낮은 목제침구인 조선시대 平床은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보이는 전래의 평좌식 가구이다.(李宗碩, 한국의 목공예, 열화당, 1986, p.78) 牀은 床의 古語이다.

* 정희원, 중부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겸임교수

용하며 실내공간의 중심에서 공간의 형식과 함께 동일한 변화의 시기를 거치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침상의 변천에 관한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시대 이전의 실내공간형식을 연구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기거용 가구를 분류하고 그 이름을 확인하므로 문헌사료를 구체화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일차적인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현존하는 유적의 부족으로 연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시대 이전의 실내공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선행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건축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료를 바탕으로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기거용 가구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 관한 연구는 다음으로 남겨두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로 고려 및 조선의 기거용 가구의 역사적 변천을 확인하는 기준틀이 설정될 수 있으며, 나아가 床, 榻이 사용되는 실내공간의 변천과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우리 주거사에서 기거용 가구의 형식을 고찰할 수 있는 최초의 유적은 고구려 고분벽화 인물풍속도의 고분주인이 사용하였을 법한 좌식용 가구의 사실적 묘사이다. 벽화에 묘사된 좌식용 가구의 디테일은 놀랍게도 조선시대 가구의 디테일과 유사점이 있음으로 가구디자인 변천에 관한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지배층의 주거에 관한 연구를 통사적 관점으로 진행하면 그 시작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된 주거건축이 될 수 있으며, 그 다음은 구체적 건축법규인 삼국사기 屋舍條에서 통일신라시대 주거의 모습을 일부나마 엿볼 수 있다. 다행히도 屋舍條에서도 침상으로 해석되는 床의 사용에 관한 규제가 있으며, 이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좌식용가구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라에서 그 사용을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만한 주거건축에서 床은 당시의 생활에 필요불가결의 요소라 할 수 있다.

이후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문헌에는 床에 관한 좀 더 많은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된 기거용 가구의 모습이 고려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유지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현존하는 조선의 침상과 같은 쓰임의 보편화에 따른 형식의 간략화를 짐작할 수 있다.

기거용가구의 역사적 변천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는 양적으로는 그다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나, 어떤 시기에도 소멸됨없이 그 맥을 찾아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기거용가구가 사용되었던 시기의 주거공간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먼저 선학들의 연구³⁾

를 바탕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가구의 종류와 형식을 분류하고 동시대 중국의 사료와 비교·검토하므로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기거용가구의 형식에 따른 명칭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헌자료⁴⁾에서 기거용 가구[床, 榻]에 관련된 用例를 수집하고 가구의 활용에 따른 형식을 분석하므로 앞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였다.

2. 고구려 고분벽화의 起居用 家具

현재까지 발견된 고구려시대 벽화고분은 약 90기를 넘어서고 있다.(평양·안악지역 72기 이상, 환인·집안지역 22기 이상) 고구려에서는 벽화고분이 3세기 후반부터 7세기 전반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고, 주제는 크게 생활풍속, 장식무늬[圖案化], 신선도[四神]로 나누어진다. 3세기에서 5세기에 조성된 고분의 벽화는 주로 생활풍속과 장식무늬가 그려져 있으며, 5세기말에서 6세기에 조성된 고분에는 주로 신선도가 그려져 있다. 생활풍속을 주제로 한 고분벽화는 죽은 자 생전의 주택구조를 재현하여 영화로운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로 조영되어 당시 건축물의 형식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1. 고구려 고분벽화의 起居用 家具 유형

기거용 가구가 묘사되어 있는 고분벽화는 주로 4세기에서 5세기에 조성된 고분들이다. 묘주가 앉아있는 가구가 배치된 실내공간의 묘사는 현존하는 유구가 없는 古代 주거문화 및 공간형식을 단편적으로나마 추측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당시의 지배층이 실내에서 사용하던 가구는 무엇이며,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였는가 하는 것은 벽화를 중심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1>은 벽화에 묘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거용 가구를 분류한 표이다. 벽화에 묘사된 가구유형은 <표 1>과 <그림 1>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a)는 獨座形으로 묘주가 혼자 앉아있는 형식이다. 이때 벽화에 그려진 가구는 묘주가 가부좌를 틀고 앉을 수 있는 크기로 누울 수 있는 규모는 아니다. 높이는 바닥에서 많이

3) 최무장, 『고구려고고학 I, II』, 민음사, 1995.

전호태, 『벽화에 고구려를 말하라』, 사계절, 2004.

외이춘청저, 신용민 역, 『高句麗考古』, 호암미술관, 1996.

신영훈, 『고구려 기마민족의 삶과 문화』, 조선일보사, 2004.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역사편집부, 『고구려문화』,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75.

신형식, 『집안 고구려유적의 조사연구』, 국사편찬위원회, 1996.

특별기획전 『고구려 추진위원회』, 특별기획전 『고구려 도록』,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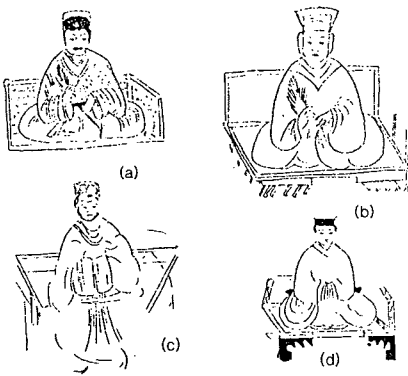
4)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번역본을 활용하였으며 한문원전은 『韓國史 史料연구실』의 자료를 다운로드[down load] 받아 대조하였다.

떨어져 있지 않은 낮은 형식이며 다리부분 즉, 평상하부의 모습이 서로 다름을 볼 수 있다. (d)약수리 고분은 정제된 툇날모양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그 외의 가구는 다리가 생략되었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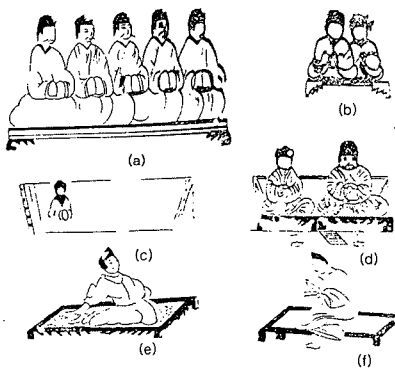
<표 1> 고분벽화의 기거용 가구 유형분류

시기	이름	벽화내용			
		형식	a)獨座	b)多人座	c)椅
4C 전반	감신고분	좌상	●		
4C 전반	태성리 1호고분	좌상	●		
4C 중엽	안악 3호고분	부부좌상	●		
4C 후반	집안 12호분(마조총)	남녀좌상	●		
4C 말	씨름고분(각저총)	의자상, 좌상			●
4C말~5C초	약수리 벽화고분	부부, 시좌좌상	●	●	
4C말~5C초	매산리 사신총	부부좌상	●		
4C말~5C초	세간고분(삼실총)	남녀좌상	●		
4C말~5C초	팔청리 벽화고분	좌상, 궤좌상	●		
4C말~5C초	마선구 1호분	부부대좌도	●		
4C말~5C초	춤고분(무용총)	의자상, 좌상		●	●
4C말~5C초	덕흥리벽화고분	좌상, 궤좌상	●		
5C 중엽	장천 1호고분	의자상, 좌상			●
5C 후반	수선리 벽화고분	좌상, 궤좌상			
5C 말	쌍기둥고분(쌍영총)	부부좌상		●	
5C말~6C초	안악 2호고분	좌상		●	

다소 조잡한 동물 발모양의 장식이 보인다. 후면과 우측에는 묘주의 허리정도 높이까지 병풍과 같은 가리개⁵⁾가 덧붙여져 있다.



(a)천왕고분 (b)감신총 (c)태성리1호분 (d)약수리고분
a)獨座(좌상)



(a),(b)약수리고분 (c)쌍영총 (d)안악2호분 (e),(f)무용총
b)多人座(평상, 榻)



(a)무용총 (b)각저총
c)椅(겉상)

<그림 1>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기거용 가구의 유형⁶⁾

5)벽화의 가리개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묘주의 후면과 우측에만 묘사되어 있으나, 실제로도 이처럼 두 곳에만 가리개를 설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화법상 좌측의 가리개를 그릴 경우 묘주의 신체부위가 가리개 되므로 좌측 가리개가 생략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사실상 가리개가 설치된 묘주의 기거용가구는 전면만을 제외한 후면과 좌우측 삼면에 난간형식의 가리개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역사편집부, 고구려문화,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75

이 책에서는 <그림 1>의 (a) 獨坐形 가구는 좌상으로 (b)의 多人坐는 평상으로 (c)는 겉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좌상과 평상은 그 생김새가 서로 같고 다만 크기가 서로 다른데, 좌상은 혼자 앉을 정도의 것이 평상은 둘 또는 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좌상은 앉아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것이고 평상은 앉기도 하고 거기 누울 수도 있게 만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b)는 둘 이상의 사람이 한 번에 앉을 수 있는 크기의 가구로 혼자 사용할 때는 누울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된다. 가구의 높이와 다리부분 장식은 獨座形 가구와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병풍과 같은 가리개는 설치되지 않고, 사람들은 가구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다. 평상하부 모양은 대부분 툇날모양이며 (f)는 현대의 평상과 같은 간략한 모습이다.



a) 고구려 각저총의 탁자 b) 조선의 소반(호족반)

<그림 2> 탁자다리

세 번째, c)는 현대식 간이용 의자처럼 걸터앉은 형식⁷⁾이다. 주인공과 손님은 의자에 걸터앉아 있으며 시중을 드는 사람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음식이 놓여 있는 卓子の 다리와 椅子의 다리는 모두 높은 다리[高足]로 말발굽처럼 생겨있다. 이 같은 말발굽형의 다리모양은 <그림 2>의 조선시대

소반다리와 거의 유사하므로 고구려시대부터 조선까지 이러한 디자인의 食卓다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고분벽화에 나타난 가구를 위의 3가지 형식으로 구분하지만 좌상과 평상의 구분은 다소 모호한 점이 있다. <그림 1>의 b)에서 묘주부부가 앉아있는 약수리 벽화고분의 가구는 위의 분류에 따라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평상으로 보기에 다소 크기가 작아 보인다. 묘주를 중심으로 가

7)중국 家具史에서는 '凳(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唐代 이전에 출현한 대표적인 高足가구이다.

리가 설치되지 않은 것 외에 크기나 다리의 모양은 a)의 (d) 獨座形 좌상과 유사하므로 오히려 묘주의 좌상에 부부가 앉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좌상과 평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평상으로 통칭하는 경우도 많다.⁸⁾ 그러나 床의 형식에 있어서 가리개의 유무는 獨座인가 多人座인가하는 단순히 크기를 중심으로 하는 분류 이상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고구려 고분벽화가 당시의 주거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실증적인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묘사된 가구의 명칭이 규정되지 못하는 것은 가구가 포함된 주거건축 구성요소에 관한 정확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제작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의 漢·魏·晉 시기 사료를 검토하고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기거용가구와 비교·분석하므로 <그림 1>의 분류 타당성과 명칭을 확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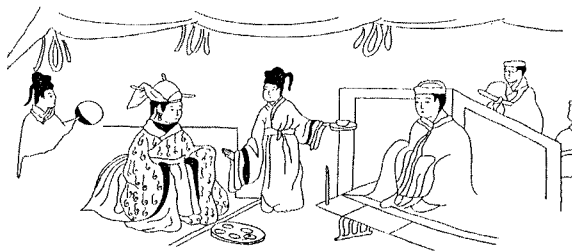
2.2. 중국 漢·南北朝(BC206~AD589)시기 기거용 가구

고구려 벽화고분과 벽화는 요동 및 낙랑지역의 漢·魏·晉 시대 벽화고분의 영향을 받아 축조·제작되기 시작하여 고구려에 수용된 이후에는 곧바로 고분축조 및 벽화제작방식이 고구려화⁹⁾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림 3>의 벽화에 묘사된 漢代の 기거용 가구와 고구려 고분벽화의 가구는 주인공의 모습이 이국적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와 디자인을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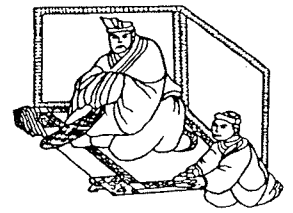
따라서 벽화에 묘사된 동일한 디자인의 가구는 그 명칭 또한 서로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a) 안악 3호분



b) 遼寧遼陽漢墓壁畫



c) 淮陽北關1号墓

<그림 3> 고구려와 전국·진·양한시기의 가구

8) 묘주가 獨座하고 있는 가구를 '榻'으로 규정한 논문도 있다.(이정국·이강업,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기거양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2호 통권 100호 1997, 2) 이 논문에서는 탑은 길면서 폭이 좁고 낮아서 땅에 가까이 있는 것으로 작은 것을 獨坐라 하고 주인은 혼자 앉은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탑은 지배계급이나 부유층에 한하여 사용되었고 피지배 계급은 땅에 자리[席]를 깔고 앉거나 床 위에 앉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9) 특별기획전 고구려 추진위원회, 특별기획전 고구려 도록, 2002, p.42. 357년경 제작된 안악3호 고분벽화의 인물들이 전형적인 중국계 복식을 하고 있는 반면, 408년에 그린 덕흥리 벽화고분 인물들이 이전보다 고구려화한 복식을 하고 있는데서 중국의 영향이 고구려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漢時期 존귀한 사람[尊者]의 자리 즉, 가구에 관한 설명이 있는 중국문헌 중에는 《商君韋, 卷四, 畫策第十八》의 '人主處匡牀之上..'라는 대목을 찾을 수 있다. '匡牀은 사람이 앉는 가구[坐具]를 가리키는데 정방형[方床, 正床]으로 삼면이 병풍이나 난간으로 둘러쳐져 있는 床¹⁰⁾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더불어 秦漢시기 이후 坐榻이 유행하여 좌상이 匡牀과 유사해졌지만, 초기에는 왕이 사용하던 고귀한 起居用具로 匡牀의 유래와 형식을 설명하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와 같이 혼자 앉아 있는 가구에 관한 기록도 있다.

唐代에 편찬된 사전류인 <玄應音義>¹¹⁾에는 卷四 曾引<埤蒼>에 "枅, 榻也, 謂獨坐板床也."라는 기록이 있다. '枅'은 곧 '榻'으로 '板床'에 혼자 앉는 가구를 이르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본래 枅은 한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비교적 존귀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가르킨다'¹²⁾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두 문헌을 종합하면, '匡牀'은 초기에 귀한 사람이 앉던 가구로 후대에 이르러 榻이 유행하면서 그 형식이 '坐榻'으로 보편화하였고, '枅'은 '榻'으로 특히, 혼자앉는 가구를 말한다. 그런데 '匡牀'과 '枅', '坐榻'은 모두 '床'의 서로 다른 유형이다. 방형의 床에 병풍이나 난간을 두른 '존귀한 사람을 위한 자리'는 '匡牀'이며, 한 사람만이 板床에 앉을 수 있는 榻은 '枅'으로 '匡牀'과 '枅'은 '坐榻'과 격식이 구분되는 것이다. 그러면 '匡牀', '枅'과 비교설명되는 '坐榻'은 어떤 형식의 가구인지, 榻에 관해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문헌이 있다.

10)…這裏의 '匡牀'皆指坐具, 其形制或依'匡'字而釋爲方床, 正床, 或依其形而釋爲三面有屏或圍欄的床. 而從上述兩處記載來看, 這裏的 '匡牀' 與秦漢時期流行的坐榻顯然十分接近, 它們最初都爲王者所用, 是較席更爲高貴的起居用具. 因此, 古人釋'匡牀'爲端床, 正床, 恰是指其尊貴的地位而言. 臥床雖也可坐…

11)又名<大唐衆經音義>,唐代玄應高僧撰 25권. 唐 시대(A.D. 644) 편찬. [편] 玄應.

현존하는 음의 가운데에 가장 오래된 것. 화엄경에서 順正理論에 이르는 458종 2,200권을 선택해 범어를 번역하고 난해한 자구를 번역한 것. 현음음의는 음의 문헌 중에서도 그 효시를 이루는 것으로서, 내용면에서 볼 때는 다른 음의에 비해 분량이 적은 편이다. 대략 456종의 경전에 나오는 어휘들을 경전별로 제시한 뒤 그 음과 뜻을 주석하고 있다.

12)因枅上只能坐一人, 故又稱 "獨坐" 這種獨坐式小榻一般比較尊貴, 多爲主人或長者, 尊者所坐.(李完山 著, 中國家具史圖說, 湖北美術出版社, 2000, p.128)

後漢시기의 사전 <釋名·釋床帳>¹³⁾에는 ‘說得更具体：<長狹而卑曰榻，言其榻(場)然近地也> 卽指比床顯得窄長而矮小者称为榻.’이라 하여 상과 탁에 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다.榻은 낮으므로 지면에서 가깝고,床에 비해 좁고 세장한 것이다.床과榻은 크기와 높이 차이만 있을 뿐 그 외의 차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역시 漢代의 사전인 <說文解字>¹⁴⁾에서도 ‘中就直接釋榻爲 <床也>’라고 하여 상이 곧 탁이라고 해석하므로床과榻은 특별한 구분 없이 함께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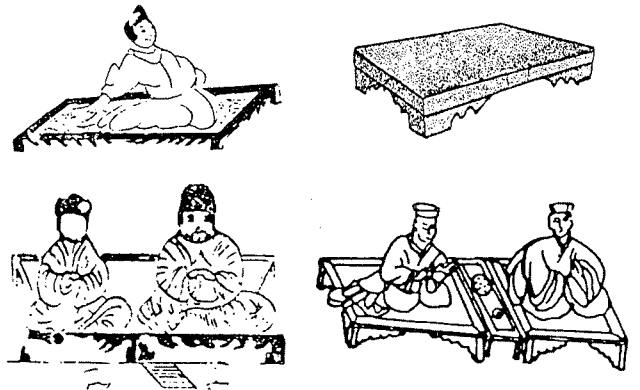
그러나 상과 탁을 규모로써 구분하는 문헌도 있다.

後漢에 如服虔에 의해 편집된 <通俗文>¹⁵⁾에서는 “床三尺五曰榻，板獨坐曰枰，八尺曰床”으로床의 크기는 8尺이며,床이 3, 5尺이면榻이라고 그 크기를 규정하고 있다.여기서도 상과 탁은 크기에 관한 비교만 있을 뿐 그 외의 차이점에 대한 기록은 없다. 만일床과榻이 가리개가 시설되는 등 匡牀과 같이 특정한 형식으로 상호간의 차이가 구분된다면 당시의 언어를 해석하는 字書들은床과榻의 구분에 관하여 좀 더 상세히 기록하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의 문헌기록을 종합하면床과榻은 구조나 모양에서는 별 다른 차이가 없으나,榻은床에 비해 작고 낮으며 폭도 좁은 세장한 형식의 것으로床이 주로 ‘취침을 위한 가구[臥式]’라면,榻은 ‘앉기 위한 가구[坐式]’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榻에는 병풍이나 난간 등의 꾸밈이 없으며 이러한 꾸밈의 시설이 더해지는床은 크기와 무관하게 ‘귀한 사람의 자리’를 상징하는 위계를 갖는다.

2.3. 고구려와 漢·南北朝시기의 기거용 가구의 비교

중국에서의 기거용 가구는 南北朝時期 이후 <그림 4>와 같은 하단부 툽날모양 장식이 <그림 5>와 같은 연꽃무늬 안상형으로 대부분 변화¹⁶⁾한다.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서한 후기의 일로 가장 초기의 기록상에 보이는 佛寺는 A.D 67년 낙양의 白馬寺이다.¹⁷⁾ 그러나 이는 기록일 뿐이며 중국 역사상 첫 번째 민족의 대융합기인 南北朝時期가 되어서야 불사는 당



a) 고구려 기거용 가구의 다리 b) 漢代 기거용 가구의 다리
 <그림 4> 툽날모양 다리의 기거용 가구

시의 중요한 건축활동의 하나가 된다. 이 시기 중국에서 기거용 가구의 형식이 변화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변화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고구려는 A.D 372(소수림왕)년 불교가 전래되어 삼국사기에는 광개토태왕 2년(498) 평양에 9개의 사찰이 창건되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림 4>의 툽날모양 다리 기거용 가구가 4세기말 이후 5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분벽화에서 폭넓게 나타나고, 연꽃무늬 안상형 장식이 보이지 않는 것을 중국과 비교하면, 아직 불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건축활동은 아니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사건축이 점차로 증가하였을 법한 고구려 후기 고분벽화에는 주로 사신도가 그려져 있으므로 기거용가구에 안상형 모양의 장식이 사용되었는가에 관한 단서는 아직 찾을 수 없다. 다만 <그림 1>과 <그림 3>의 고구려 고분벽화 가운데 시기가 앞서는 감신총과 안악3호분의 묘주가 사용하는 가구다리는 <그림 3>의 전국, 진·양한 시기 기거용 가구의 디테일과 거의 일치함을 볼수 있으며, <그림 4>의 툽날모양 다리는 漢代의 형식과 거의 유사하므로 실제로 고구려 후기의 사람들이 실내에서 기거용 가구를 사용했다면 <그림 5>와 같은 연꽃무늬 안상형 모양의 기거용 가구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13)後漢 말 劉熙가 지은 책. 같은 음을 가진 말로 어원을 설명하였다. 내용에 의해서 釋天·釋地·釋山으로 시작하여 釋疾病·釋喪制 등 27편으로 분류되어 있다. 소리가 비슷한 말은 의미에도 많은 관련이 있다는 聲訓의 입장에서 해설을 한 점이 특색이다. 익지에 불과하다는 설도 있으나 어원을 해설한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오늘날에는 그 실물을 알 수 없는 器物과 家具에 관해 귀중한 기록이 많다.

14)총 15편. 後漢의 許慎이 편찬하였다. 그 중 말미의 敍 1편은 秦漢 이래 문자정리의 연혁을 밝힌 것으로 100년에 완성되었다. 그 당시 통용된 모든 한자 9,353자를 540部로 분류하고, 親字에는 小篆의 字體를 쓰고, 그 각 字에 字義와 字形을 說解(訓詁解釋)하였다. 소전과 자체가 다른 或體字(古文·籀文)는 重文으로서 1,163자를 수록하였다.

15)2권, 後漢때 사람 복건‘如服’ 編著.

16)李完山 著, 中國家具史圖說, 湖北美術出版社, 2000, p.26.

17)劉敦楨 著, 韓東洙 外2 共譯, 中國고대건축사, 세진사, 1995, p.158.



a) 歷代帝王圖卷 b) 龍門寶陽洞中之維摩說法道象

<그림 5> 중국 남북조시기 기거용 가구 다리형식



a) 안악 3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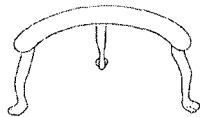


b) 덕흥리 벽화고분

<그림 6> 고구려 고분벽화의 匡牀



憑几 南齊本陳皇帝像



憑几及牛車中之憑几
南京六朝墓出土

<그림 7> 중국 南京六朝墓 出土의 憑几(남북조시기)

또한 <그림 3>과 <그림 4>의 중국 사료를 <그림 6>과 비교해 보면, <그림 6> 덕흥리 고분 묘주가 앉아 있는 기거용 가구의 형식은 <그림 3> 전국 및 진·양한시기 후편 및 우측에 가리개가 시설되고 상부에 휘장[帷幕]이 둘러쳐진 형식에 <그림 4>의 툽날 모양 다리가 합쳐져 완성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덕흥리 고분벽화의 묘주가 몸을 기대고 있는 憑几(빙계)는 <그림 7>의 南京 六朝墓 出土 유적과 거의 일치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기거용 가구의 변천과정을 고구려 고분벽화와 비교한 결과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가구의 다리형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의 양상을 볼 수 있으나, 그 외의 가리개 형식이나 휘장[帷幕]의 형식은 지속적으로 동일한 형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안악 3호분의 경우 남자주인과 여자주인의 기거용 가구 형식이 거의 유사하면서도 남자주인의 가구에는 가리개가 있으나<그림 3 참조>, 여자주인의 가구에는 가리개가 시설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병풍과 같은 형식의 가리개 시설은 일정한 지위의 사람을 위한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정방형의 床[方床]에 가리개가 시설된 가구를 중국에서는 '匡牀'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으며, 匡牀은 후대에 座榻이 유행함에 따라 그 형식이 座榻화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坐式用 가구인 榻에 사용자 신분의 존귀에 따라 병풍이나 난간이 시설되는 경우는 좌식용

가구이더라도 그 명칭은 여전히 '床'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헌 기록에 따라 榻을 坐式用 가구로 床을 높기 위한 臥式用 가구로 해석하면서도, 병풍·난간[가리개]이 시설된 坐榻은 여전히 '床'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따라서 '床'의 형식에서 병풍·난간과 같은 가리개의 사용은 곧 사용자신분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의 a), <그림 6> b) 같이 주인이 혼자 앉아있는 가리개가 시설된 고구려 고분벽화의 기거용 가구는 '匡牀' 혹은 '座床'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은 모두 유사한 디자인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실내공간에 배치되는 가구이지만 병풍이나 난간 혹은 휘장[帷幕]이 시설되므로 자유로운 이동이 극히 제한적인 고정식 가구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座床'은 집주인이 주로 거처하는 공간, 특히 외부 손님을 자주 맞이하는 주거건축의 중심공간에서 주인의 권위를 표현하는 가구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불가결의 기거용 가구인 것으로 사료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獨坐用 坐榻은 병풍시설의 유무와 크기에 따라 '匡牀'과 '桴'으로 구분되며 榻은 '板床'에 '坐'18)하는 가구를 총칭한다. 따라서 '床'이 3尺이나 5尺이고 板床에 앉는 가구를 '榻'19)이라고 하면 <그림 1>의 b)와같이 여러 사람이 앉아있는 가구는 '榻'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그림 1>의 a)-(c)태성리 1호분이나 <그림 6>의 a)안악3호분과 같이 휘장이 쳐진 獨座形이지만 가리개의 시설이 없는 경우도 獨座形 榻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면 가리개가 시설된 '座床'을 사용할 수 신분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남게 되지만, 이는 고구려 고분의 주인이 정확히 밝혀진 후이나 연구가 가능한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오히려 벽화고분인 경우는 본 연구와 같이 실내공간의 구성요소가 모두 분석되고 체계화된다면 그를 통하여 주인의 신분을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같이 <그림 1>의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가구의 형식은 부분적으로는 시간의 흐름20)에 따라 정제된 디자인으로 변천하지만, 상징적 요소는 일정한 형식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후기로 오면서 獨座형보다 둘이상의 사람들이 앉아있는 多人座[榻]의 묘사와 결상형식의 표현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18)<玄應音義>(又名<大唐衆經音義>,唐代玄應高僧撰) 卷四 曾引<埤蒼> "桴, 榻也, 謂獨坐板床也."

19)<通俗文> "床三尺五曰榻, 板獨坐曰桴, 八尺曰床"

20)중국건축사에서는 畫像石 및 문헌사료에 첨부된 삽도를 통해 실내공간에 활용되던 가구의 역사적 변천을 확인하고 있다. 중국의 실내공간 생활양식은 바닥에 자리를 깔고 생활하는 좌식생활로부터 낮은 평상류의 가구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점차로 가구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의자식생활(입식생활)로 변천하게 되는 흐름을 갖게 된다.(劉敦楨著, 韓東洙外 2譯, 중국고대건축사, 세진사, 1995) 중국건축사에서의 이러한 흐름은 우리건축사에서 실내공간의 변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를 통하여 점차로 起居用 家具 즉, 榻의 활용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리의 모양은 <그림 4>와 같은 툇날 모양 다리장식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현대의 침상과 같이 간소화된 모양도 보이므로 榻의 사용이 증가하고 사용범위가 확대되면서 디자인도 단순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문헌에 나타난 기거용 가구의 해석

지금까지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된 기거용 가구를 사용자의 수 및 크기와 꾸밈 등에 따라 분류하고 중국의 사료 및 文獻用例와 비교 검토하므로 유형을 분석하였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된 기거용 가구는 동시대의 중국 고분에 묘사된 가구와 그 형식이 대부분 흡사하므로 명칭 또한 동일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문헌을 중심으로 기거용 가구에 대한 用例를 선별하여 의미를 해석하였다.

3.1. 床의 용례

三國史記에서 床에 관련된 대표적인 기록은 卷第三十三 雜志 第二 屋舍²¹⁾에서 六頭品의 주거를 규제하는 부분이다.

다음은 屋舍條의 全文이다.

<三國史記, 卷第三十三, 志二, 屋舍條>

- 眞 骨: 室長廣, 不得過二十四尺, 不覆唐瓦, 不施飛簷, 不雕懸魚, 不飾以金·銀·鑲石·五彩, 不磨階石, 不置三重階, 垣墻不施梁棟, 不塗石灰, 簾緣禁錦·闕·繡·野草羅, 屏風禁繡, 床不飾玳瑁·沈香.
- 六頭品: 室長廣, 不過二十一尺, 不覆唐瓦, 不施飛簷·重楸·栲牙·懸魚, 不飾以金·銀·鑲石·白鐵·五彩, 不置中(中)階及二重階, 階石不磨, 垣墻不過八尺, 又不施梁棟, 不塗石灰, 簾緣禁繡·繡綾, 屏風禁繡, 床不得飾玳瑁·紫檀·沈香·黃楊, 又禁錦薦, 不置重門及四方門, 厩容五馬.
- 五頭品: 室長廣, 不過十八尺, 不用山楡木, 不覆唐瓦, 不置獸頭, 不施飛簷·重楸(楸)·花斗牙·懸魚, 不以金·銀·鑲石·銅·鐵·五彩爲飾, 不磨階石, 垣墻不過七尺, 不架以梁, 不塗石灰, 簾緣禁錦·闕·綾·絹·綺, 不作大門·四方門, 厩容三馬.
- 四頭品至百姓: 室長廣, 不過十五尺, 不用山楡木, 不施藻井, 不覆唐瓦, 不置獸頭·飛簷·栲牙·懸魚, 不以金·銀·鑲石(錫)·銅·鐵爲飾, 階砌不用山石, 垣墻不過六尺, 又不架梁, 不塗石灰, 不作大門·四方門, 厩容二馬.
- 外眞村主與五品同, 次村主與四品同.

21)三國史記 屋舍條는 현존하는 最古의 구체적인 건축법규로 통일신라시대의 주거건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건축사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다음은 이에 관한 선학들의 연구결과이나 당시의 건축언어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김정기, 문헌으로 본 한국주택사, 동양학 7집, 1977.

주남철, 三國史記 「屋舍條」의 신연구, 김원통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일지사, 1987.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86.

이상해, 「屋舍」條의 재해석, 건축역사연구, 제4권 2호, 통권 8호, 1995, 12.

옥사조는 통일신라시대의 주택법규로 신분에 따른 건축규모와 꾸밈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다. 먼저 규제의 대상이 되는 室의 규모를 신분별로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에 사용되는 나무의 종류와 기와의 종류 및 지붕의 장식에 관한 규제와 건축물의 구조형식[架構構造], 階[기단]의 형식 및 구조와 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공간과 상관성이 있는 床과 주렴(簾)등의 꾸밈에 관한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규제의 내용으로는 당시 사용되었던 床이 어떠한 형식인지는 알 수 없으나, ‘...屏風禁繡...床不得飾玳瑁·紫檀·沈香·黃楊·又禁錦薦...’라는 기록 ‘禁錦薦(금금천)’에서 臥席 즉, 눕는데 깔아두는 요의 의미인 ‘薦(천)’을 비단으로 만드는 것을 금한다는 것으로 보아 床의 일반적 의미인 취침용 가구²²⁾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옥사조에서는 진골과 6두품의 계급에서 床의 형식을 규제한다. 5두품과 4두품에서는 床에 관한 조항이 없으므로 시설 자체가 금지되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床의 규제사항이 주로 장식제(床不得飾玳瑁(대모)·紫檀·沈香·黃楊)에 관한 사항이므로 기거용 가구의 사용자체에 대한 규제는 없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병풍에 관한 조항이 6두품 이상은 床과 함께 수놓은 병풍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5두품 및 4두품에서는 床과 屏風의 규제조항이 동시에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삼국사기 옥사조에서 규제하는 床과 屏風의 형식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座床’의 형식 및 꾸밈과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고구려의 座床에 시설된 병풍은 난간과 같이 그 높이가 낮게 되어 있지만 屋舍條의 床은 취침용의 가구로 해석되므로 병풍의 높이도 防寒의 역할이 고려된 정도의 높이로 시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옥사조의 규제사항 중에서 병풍과 함께 방한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천정[藻井]과 주렴[簾]에 관한 부분이다. 床과 병풍은 진골 및 6두품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천정과 주렴은 5두품까지도 허용될 수 있는 조항이다. 이것은 안악 3호분에서 남자주인공의 좌상에 시설된 가리개와 휘장이 여자주인공의 좌상에서는 가리개가 빠지고 휘장만 드리워져 묘사된 것이나, 고분벽화에서 기거용 가구와 무관하게 실내공간에 묘사된 휘장의 모습과 비교될 수 있다. 그렇다면 5두품은 천정[藻井]에 주렴[簾]을 드리우고 床榻을 사용할 수 있다. 역시 屋舍條에서도 병풍의 시설은 사용자의 지위를 상징하는 실내장식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겹으로 방한의 역할을 강화하는 필수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4두품 및 백성은 이 모든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그들이 건축할 수 있는 室의 규모는 15尺이

22)床을 실내의 바닥으로 해석하는 연구결과도 있으나,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문헌에서 「臥式用 家具」임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으므로 ‘바닥의 의미’라는 해석은 다소 무리가 있다.

나 이다. 즉, 천정과 주렴을 사용할 수 있는 5두품은 18尺의 室을 건립할 수 있으며, 床과 屏風을 사용할 수 있는 6두품은 21尺의 室을 건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으로 미루어 옥사조에 기록된 신분별 건축규모의 규제는 당시 지배층의 실내공간에 사용되었던 가구 즉, 床의 규모와 형식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나아가 더 많은 자료의 수집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옥사조 외에 床이나 榻에 관련된 用例는 찾기 어려우며, 삼국유사에서 몇몇 床에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표 2>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床의 用例이다. <표 2>에서

“...얼마 후 우리러 바라보니 단지 자주색 줄만이 하늘에서 드리워져 땅에 닿아 있었다. 줄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로 싸여있는 금합이 보였다. 열어 보니 황금알 6개가 있었는데, 둥글기가 해와 같았다. 무리는 모두 놀라고 기뻐서 함께 몸을 펴서 백 번 절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행진에 싸안아 가지고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와 榻위에 놓고, 무리는 각기 흩어졌다. 12일이 지난 그 이튿날 아침에 무리가 다시 모여 합을 열어 보니 여섯 알이 변하여 어린이가 되어 있었는데, 용모가 매우 위대했다. 곧 床에 앉으니 무리들이 절하며 치하하고 공경의 예절을 다했다...”²³⁾

수로왕의 탄생신화인 이 기록에서는 처음 금합을 놓은 것은 榻이고 후에 알이 어린이로 변하여 앉은[坐] 곳은 床으로 기록하고 있다. 곧 榻과 床이 한 실내에 있음을 보여주는 기사이기도 하며, 수로왕이 榻에 앉지 않고 床에 앉은 것은 榻에 비해 床이 위계가 높은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榻’에 비해 ‘床’은 크기도 크고 높이도 높은 취침용 가구이지만, 병풍이나 난간, 유막과 같은 꾸밈이 시설되면 ‘귀한 사람의 자리’를 의미하게 되므로, 알을 놓았을 때는 ‘榻’에 놓지만 후일 수로왕이 되는 어린이로 변하였을 때는 귀한 사람의 자리인 ‘床’에 앉은 것으로 구분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榻과 관련된 사례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찾을 수 없으므로 자료의 부족으로 더 이상의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같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서술관점에 따른 한계라 할 수 있지만, ‘床’이 지배층에서 사용되던 가구라면 ‘榻’은 피지배층에서 사용되는 가구이므로 문헌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고려시대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시문집에는 상과 답에 관한 보다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관한 좀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기거용 가구를 史料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된 기거용 가구는 병풍과 같은 가리개가 시설된 것은 ‘座床’으로 가리개의 시설이 없는 경우는 ‘榻’으로 분류된다.

‘榻’은 ‘좌식용의 床’으로 榻에 가리개[屏風]가 시설되는 경우도 ‘座床’으로 분류된다. 座床은 병풍이 시설되지 않은 취침용의 일반적인 床과는 구별되는 위계를 가지며 그 꾸밈과 형식으로 사용자의 권위와 지위를 표현한다.

둘째, 삼국사기 옥사조에서 床은 바닥에 까는 요[薦(천)]와 함께 기록되므로 취침을 위한 기거용가구를 알 수 있으며, 진골과 6두품에서 屏風과 함께 그 형식이 규제된다. 따라서 옥

23)三國遺事,券第2, 紀異,第2, 駕洛國記.

<표 2> 三國遺事에 기록된 床의 종류와 기능

원문	종류	행위	장소	출전
개우 이상히 여겨 조정에 돌아와 아뢰었다. 진평왕이 이를 듣고 사자를 보내 맞아 오게 하였다더니 혜숙이 부인용 상(婦床)에 누워 지는 체 한다.	婦床	누워		遺事,券第4, 義解,第5, 二惠同慶
어섯 알이 변하여 어린이가 되어 있었는데 용모가 매우 위대했다. 곧 床에 앉으니 무리들이 절하며 치하하고 공경의 예절을 다했다.	床	앉으니		遺事,券第2, 紀異,第2, 駕洛國記
침이 세상에 있을 때 침기름을 床 밑에 묻어두고 또 곱게 짠 베를 침구(寢褥) 사이에 감춰 두었으니...	床			遺事,券第5, 感通,第7, 善律還生
친제는 (이목이) 그 직분을 남용했다고 하여 죽이려고 했다. 이목이 조사에게 위급함을 고하니 조사가 床 아래에 숨겼다.	床			遺事,券第4, 義解,第5, 寶壤梨木
지가 (공의 병을) 낫게 하겠습니까...공이 (그를) 불러오게 하여 床 밑에 와서 앉았으나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床	누워 (病中)		遺事,券第4, 義解,第5, 二惠同慶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의 기거용 가구에 관련된 문헌 用例는 극히 소수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문헌용례에서 床이 구체적으로 어느 공간에 배치되는가에 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으나,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床을 중심으로 하는 행위는 대부분 ‘눕는[臥]’는 것 혹은, 수로왕이 앉는[座床]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문헌의 주체가 대부분 신라의 귀족이나 승려이고 귀중한 물건이나 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기위한 장소로 床의 아래, 밑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床’은 규모가 있으며 병풍 등의 시설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취침용 가구임을 확인 할 수 있다.

3.2. 榻의 용례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는 기록의 주체가 가지는 서술적 관점의 제한으로 역사의 주체가 주로 당시의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비록 소수의 문헌사료이지만 기거용 가구에 관한 용례가 주로 床에 관련된 기록인 것도 주로 문헌 내용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수로왕의 탄생신화는 床과 榻의 위계를 구분할 수 있으며,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서 榻에 관련된 유일한 사료이다.

사조의 床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묘주가 앉아있는 '座床'이 누울 수 있는 크기로 확대된 형식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휘장[簾]은 수를 놓아 장식하지 않는다면 5두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남자의 좌상에 시설된 가리개[屏風]와 휘장이 여자의 좌상에서는 휘장만 드리워져 묘사된 것이나, 기거용 가구와 무관하게 실내공간에 묘사된 휘장의 모습과 비교될 수 있다.

따라서 삼국사기 옥사조에 규제된 床과 屏風 및 휘장[簾]의 형식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된 座床 및 榻의 형식이 유지되는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사료에서 보이는 기거용가구의 연꽃무늬 안상형 다리 床榻이 불교건축의 홍성과 관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관련된 연구의 확인이 필요하다. 현존하는 안상형의 꾸밈은 주로 불상의 좌대, 석등의 기단부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고구려 기거용가구의 다리장식이 중국사료의 변천과 유사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불교가 흥성하던 시기의 지배층은 안상형으로 꾸며진 다리로 시설된 床榻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진전된다면 옥사조에서 규제하는 주거공간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며, 기거용 가구의 디자인 변천에 관한 통사적인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현존하는 유구가 거의 없는 고려시대의 실내공간에 관한 연구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三國史記.
2. 三國遺事.
3. 玄應音義(大唐衆經音義).
4. 通俗文.
5. 商君章.
6. 釋名.
7. 說文解字.
8. 李完山 著, 中國家具史圖說, 湖北美術出版社, 2000.
9.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역사편집부, 고구려문화,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75.
10. 최무장, 고구려고고학 I, II, 민음사, 1995.
11. 전호태, 벽화에 고구려를 말하라, 사계절, 2004.
12. 외이춘청저, 신용민 역, 高句麗考古, 호암미술관, 1996.
13. 신영훈, 고구려 기마민족의 삶과 문화, 조선일보사, 2004.
14.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역사편집부, 고구려문화,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75.
15. 신형식, 집안 고구려유적의 조사연구, 국사편찬위원회, 1996.
16. 특별기획전 고구려 추진위원회, 특별기획전 고구려 도록, 2002.
- 17.李宗碩, 한국의 목공예, 열화당, 1986.
18. 김정기, 문헌으로 본 한국주택사, 동양학 7집, 1977.
19. 주남철, 三國史記 「屋舍條」의 신연구, 김원룡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일지사, 1987.
20.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86.
21. 이상해, 「屋舍」條의 재해석, 건축역사연구, 제4권 2호, 통권 8호, 1995, 12.
22. 劉敦楨 著, 韓東洙 外2 共譯, 중국고대건축사, 세진사, 1995